

Jane Jacobs의 도시 사고를 토대로 한 도시기원 이론의 고찰

신정엽*

Review on Theories of Urban Origins of Jane Jacobs Based on Her Urban Thoughts

Jungyeop Shin*

요약 : 본 연구는 현대의 대표 도시학자인 Jane Jacobs의 도시에 대한 사고와 도시기원 이론을 심층적으로 고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Jacobs가 제시한 도시계획 사고와, 혁신, 다양성을 중심으로 한 도시 사고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도시기원 이론으로서 Jacobs이 제시한 교역이론을 다면적으로 고찰하였다. Jacobs는 현대사회에서 다양성과 혁신의 중심지인 대도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Jacobs는 뉴욕, 토론토의 대규모 근대 도시계획과 도시재개발 사업을 비판하였으며, 대신 도시 실천주의 입장에서 근린 중심의 도시 활력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도시 사고를 토대로 Jacobs는 도시기원과 관련하여, 농업잉여 이론에 반대하면서 오히려 농업 시작 이전에 도시가 기원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즉, Jacobs는 교역 기반의 도시기원 이론을 주장하면서 Catalhöyük을 사례로 교역 기반의 도시는 혁신과 지식의 집적을 토대로, 그리고 다양성의 경제효과로 성장, 발전한다고 주장하였다. Jacobs의 도시 사고는 경험적 증거, 이론적, 논리적 근거의 부족 등의 이유로 비판받기도 하였지만, 또한 현대 도시를 이해하고 접근하는 중요한 사고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가치있게 평가된다.

주요어 : 제인 제이콥스, 도시계획, 도시구조, 도시 다양성, 카탈히윅, 도시기원 이론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offer a detailed review on Jane Jacobs' thoughts on the city as she is considered as one of the influential urbanist in the academia and the public. To that end, the Jacobian view on urban planning is examined with particular attention to diversity and innovation in the beginning, and then her trade theory on urban origin is reviewed with some critical assessments. In the former, I highlight how Jacobs' anti-modernist urban activism especially in New York and Toronto was embedded in her confidence in the urban diversity and innovations. In the latter, my critical review is focused on how Jacobs' trade theory is different from the conventional theory centered on the urban origins from agricultural surplus, while outlining her case study of Catalhöyük. These examinations lead the author to contemplate on Jacobs' enormous contributions to the current urbanist theory and practices, despite the presence of critiques who indicate lacking empirical evidence and academic considerations in her works.

Key Words : Jane Jacobs, Urban planning, Urban structure, Urban diversity, Catalhöyük, Theory of urban origins

I. 서론

인류 문명과 함께 발전해온 도시는 기원 이후 오랜 역사를 통해 문명의 중심지이면서 인류의 중요한 터전이

었다. 따라서 인류에게 중요한 도시에 대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특히 도시의 기원은 도시지리학 분야의 주요 연구 주제이다(Childe, 1936; Jacobs, 1969). 도시기원 이론과 관련하여, 저명한 도시학자인 Jane Jacobs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geoshin@snu.ac.kr)

(1916-2006)는 교역과 시장을 중심으로 한 도시기원을 주장하면서, 도시기원 논의의 지평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는다(Short, 1996; Soja, 2000; Taylor, 2012). Jacobs는 도시기원 이론뿐만 아니라, 도시의 특성을 파악하고, 현대 도시계획의 문제점을 비판하였으며, 대안으로 도시 활력과 근린 중심의 도시를 주장하였다(Jacobs, 1961). 나아가 Jacobs는 자신의 주장을 직접 도시운동을 통해 적극 표출하고 구현한 실천주의자였다. 이러한 Jacobs의 도시기원 논의, 도시 사고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Jacobs 이론에 대한 심층적인 이론적 고찰이 국내에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즉, Jacobs의 도시 사고에 대한 이론적 고찰은 매우 부족하며(박진빈, 2010; 변은주, 2012), 특히 Jacobs의 도시기원 이론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와 평가는 거의 없다. 그러나 도시기원 이론과 관련한 Jacobs의 공간 사고와 논리는 매우 설득력이 있으며, 이에 대한 검토를 통해 도시기원에 대한 대안 관점의 가능성과 학술적 타당성의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을 토대로, 본 연구는 Jacobs의 도시기원 이론을 중심으로 한 Jacobs의 도시 사고를 이론적으로 고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Jacobs가 주장한 교역 기반의 도시기원 이론은 Jacobs의 도시계획 사고와, 다양성과 혁신을 중심의 도시관을 토대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Jacobs의 도시기원 이론을 심층적으로 고찰하기에 앞서, 그 이론적 토대가 되는 Jacobs의 도시 사고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Jacobs이 제시한 도시기원 논의는 초기 도시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현대 도시의 특성과 발전에도 적용될 수 있는 도시의 핵심 개념을 포함한다. 따라서 Jacobs의 도시기원 이론은 도시기원 논의를 보다 풍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현대 도시 공간에 대한 심층적 이해에도 중요한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우선 Jacobs의 생애와 활동을 간략히 살펴 보면서 도시학자로서 Jacobs의 연구 성과를 검토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Jacobs의 주요 도시 사고에 대한 고찰과 평가를 다루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Jacobs가 주장한 도시기원으로서 교역이론에 초점을 맞추어, 도시기원의 핵심 논리, Catalhöyük¹⁾ 사례, 최초 도시의 특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Jacobs의 도시기원 이론은 기존의 농업기반의 도시기원 이론과는 다른 관점을 제시하였으며, 도시기원에 대한 관점과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II. Jane Jacobs의 생애와 활동

현대 도시에 대한 중요한 사고를 제시한 Jacobs는 1916년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 스크랜튼(Scranton)의 한 의사 가정에서 출생하였다. 유년시절 이름이 Jane Butzner였던 Jacobs는 호기심과 탐구심이 많았으며 다양한 분야의 독서와 글쓰기를 즐겼다. 고향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Jacobs는 지역신문인 *Scranton Review*사 기자로 약 1년 반 동안 활동하였다. 그리고 1934년 Jacobs는 언니 Betty가 살던 뉴욕 Brooklyn Heights로 이주하였는데 당시 미국은 대공황의 시기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뉴욕으로 이주한 Jacobs는 우연한 기회로 Greenwich Village의 Christopher Street에 정착하였는데, 이 동네는 Jacobs가 토론토로 이민가기 전까지 삶의 터전인 동시에 도시계획 사고를 정립하게 된 근원지였다(Alexiou, 2006; Hospers, 2006; Tuhus-dubrow, 2017). 뉴욕의 *Iron Age* 잡지사에서 3년간 근무한 Jacobs는 이후 Office of War Information, America 등에서도 근무하였다. 1944년 건축가 Robert Hyde Jacobs와 결혼한 Jacobs는 1952년 5월부터 1958년 10월까지 *Architectural Forum*(건축포럼) 잡지사에 근무하면서 75개의 기사를 작성, 발표하였다(Laurence, 2007).

당시 뉴욕시는 오랜 기간에 걸쳐 슬럼화되었고 많은 대도시문제로 인해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였다. 이에 당시 뉴욕시장 Fiorello La Guardia의 수석 자문인 Robert Moses(1888-1981)는 뉴욕시 낙후된 소규모 근린들을 재개발하고, 고가도로, 고층건물 등을 건설하는 대규모 도



그림 1. 1961년 당시 Jane Jacobs의 모습
출처 : US Library of Congress 홈페이지.

시재개발 계획을 추진 중이었다. 이 뉴욕시 재개발 계획은 맨해튼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Jacobs가 살던 Greenwich Village도 포함되었다. Jacobs는 이러한 도시 재개발 계획에 반대하는 글을 신문 등에 연속으로 기고하였고, 강연을 통해서도 문제점을 부각시켰다(Hospers, 2006).

이때 발표한 뉴욕시 도시재개발 계획에 대한 반대 글을 토대로, Jacobs는 록펠러 재단의 후원 하에 1961년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The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을 출간하였다. 이 저서는 도시계획 분야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대중적인 인기도 얻었다. 이론, 이데올로기에 대한 반감을 가진 Jacobs는 경험, 관찰을 토대로 자신의 견해를 밝혔으며, 이러한 경험주의적 관점은 지속되었다(Tuhus-dubrow, 2017). Jacobs는 뉴욕시가 진행하는 관료주의적 도시계획에 반대하였고 재개발 반대 주민위원회를 결성하였다. 반대시위 도중 Jacobs는 1966년 체포되기도 하였는데, 체포 직후 Jacobs는 캐나다 토론토로 이주하였다. 이민의 원인으로 당시 베트남 전쟁 반대, 특히 징병 대상이었던 두 아들의 징집 우려, 뉴욕시 정부에 대한 지속적인 투쟁의 어려움 등으로 추정된다. 토론토로 이주한 Jacobs는 2006년 4월 25일 타계할 때까지 약 35년간 토론토에서 지냈다(Hospers, 2006; Laurence, 2007). 이주한 토론토에서도 Jacobs는 도시계획 사안에 적극 참여하였다. 예를 들어 캐나다 최대 도시인 토론토 도심을 관통하는 Spadina Expressway 건설계획을 반대하였고, 자동차 중심의 도시계획, St. Lawrence 근린재생 계획도 반대하였다. 반대집회 도중 두 번이나 체포되었으며, 또한 1974년 캐나다 시민권도 획득하였다. Jacobs(1993)는 캐나다 도시가 미국 도시보다 더 낫다고 믿었는데, 왜냐하면 캐나다는 근린을 차별화하여 대출해주는 레드라이닝(redlining), 인종문제 등이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심각하지 않으며, 캐나다 정부가 고속도로 건설, 도시재생 등에도 상대적으로 적극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Hospers, 2006; Mellon, 2009; White, 2011).

Jacobs는 1980년 퀘벡(Quebec) 지역주의에도 관심을 표명하였다(Jacobs, 1984). Jacobs는 캐나다 연방정부에 대한 불만으로 독립하려는 퀘벡 주의 분리운동을 적극 지지하였다. Jacobs는 21세기 변영의 시기에 도시는 주변지역과 정치적으로 독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일반론을 주장하였다(Hospers, 2006). 이는 2006년 4월 27

일자 *Financial Times Obituary*에 소개된 기사처럼 Jacobs는 ‘도시를 스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간섭하지 말고 그대로 놔두어야 한다’는 주장과 일맥상통한다(Hospers, 2006; Laurence, 2007). 같은 맥락에서, Jacobs는 「분리의 질문(The Question of Separation)」(1984)을 통해 퀘벡지역 분리의 해법을 제시하였는데, 실용적 관점에서 퀘벡지역의 분리는 캐나다 연방과 퀘벡 주 모두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Jacobs(1984)는 이 분리운동은 퀘벡 주와 이웃 온타리오(Ontario) 주간의 경제적 차원의 경쟁에서 시작되었다고 진단하였다. 즉, 두 지역 간 경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캐나다 정부는 낙후된 퀘벡 주에 상당한 공적지원을 했어야 하였지만 그러지 못해서 퀘벡주 주민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보았다. 한편 이러한 퀘벡 주에 대한 연방정부 지원은 영어권인 온타리오 주의 입장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여길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러한 두 주체간의 입장 차이와 갈등은 캐나다로부터 퀘벡 주가 분리되면 해소될 것이라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퀘벡 주는 자신의 발전을 위해 스스로 더 노력할 것이며, 온타리오 주도 연방정부의 공적지원의 불만이 더 이상 없을 것이며, 캐나다 정부도 엄청난 공적지원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제안하였기 때문이었다.

Jacobs는 저명한 도시학자와는 다른 독특한 학문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즉, Jacobs는 대학 이상의 교육 경험 없이, 또한 학문 세계에서 중요시 되는 학술적 논의와 심층적인 이론적 검토와는 거리를 두었다. 이러한 개인적 배경으로 인해, Jacobs는 직접 경험과 단편사례를 토대로 논리와 주장을 전개하였으며 경험주의 방식으로 도시 사고를 정립하였다. 실제로 Jacobs는 발표된 저서와 신문기고를 통해 대중의 인기를 얻었지만, 대중성과는 달리 학계로부터의 냉정한 비판이 지속되었다. 나중에 다시 살펴보겠지만, Jacobs는 학계로부터 그녀의 논리와 주장이 이론적,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며, 추상적인 논리와 경험적 증거간의 비약이 크다는 이유로 비판받게 된다(Friedman, 1970; Laurence, 2007).

III. Jacobs의 도시 공간 사고

Jacobs는 연구논문, 전문 학술서적보다는, 저서, 저널, 신문 등에 기고한 수많은 글을 통해 자신의 사고를 펴려

하였다. Jacobs의 학문적 사고는 인생의 전반기와 후반기로 구분될 수 있다. 전반기(1960년대~1980년대 중반)에 Jacobs는 주로 도시에 초점을 두어 도시의 정의, 특성, 비전 등에 관심을 가졌는데, 이를 토대로 도시의 기원, 도시발전의 요인과 특징, 도시문제와 해결책, 바람직한 도시계획 등의 주제를 제시하였다. 한편 Jacobs의 후반기(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도시보다는 사회 분야 전반에 관심을 두었는데, 예를 들어 문화의 근원적 가치와 사회경제적 의미를 다루고 있다.

Jacobs의 주요 저서를 간략히 살펴보면, 우선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The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1961)은 미국 대도시의 본질에 초점을 두면서 도시 활력과 근린의 중요성을 부각하였다(그림 2의 좌측). 그리고 두 번째 저술인 「도시의 경제(Economy of Cities)」(1969)는 도시의 기원과 발전 토대로서 도시경제의 다양성을 토대로 한 도시 혁신과 경제발전을 강조하였다. Jacobs의 초기에 출간된 이 두 저서는 도시에 대한 기본 사고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된다. 그리고 1985년 출간된 「도시와 국가의 부(Cities and the Wealth of Nations)」²⁾에서는 도시, 국가 간의 관계에서 도시의 역할과 도시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후, Jacobs는 1993년 「생존의 시스템(Systems of Survival)」을 통해 시장, 정부의 역할을 구분하면서, 사

회적, 도덕적 측면에서 두 주체간의 관계와 역할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88세가 되던 2004년 대도시 발전이후 서구문명의 쇠퇴를 우려하고 논의한 「도래하는 암흑기(Dark Age Ahead)」를 저술하였다(Laurence, 2007). 한편 일부에서는 Jacobs의 사고를 반(反) 모더니즘적, 반(反) 도시계획적으로 잘못 해석하여, 도시의 다양성과 도시 건축의 혁신을 중요시한 Jacobs의 사고를 제대로 이해하는데 실패하였다(Laurence, 2007). 이처럼 Jacobs의 도시 사고를 단순히 단정짓기에는 현대 도시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많이 담고 있다. 이처럼 Jacobs의 주장과 사고는 다양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모두 다루지는 못하며, 대신 Jacobs의 도시 사고, 특히 Jacobs의 도시계획과 다양성, 혁신의 개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근린 중심의 도시계획과 도심의 활력

1960년대 이후의 도시계획 경향은 급격한 도시화와 대도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지향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도시계획은 교외화 등 도시기능의 분산을 통해 대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Wright(1958)은 고밀도의 대도시보다는 저밀도의 전원도시를 선호하였으며, Mumford(1961)는 대도시를 문명의 재앙으로 규정하고 ‘지역도시(region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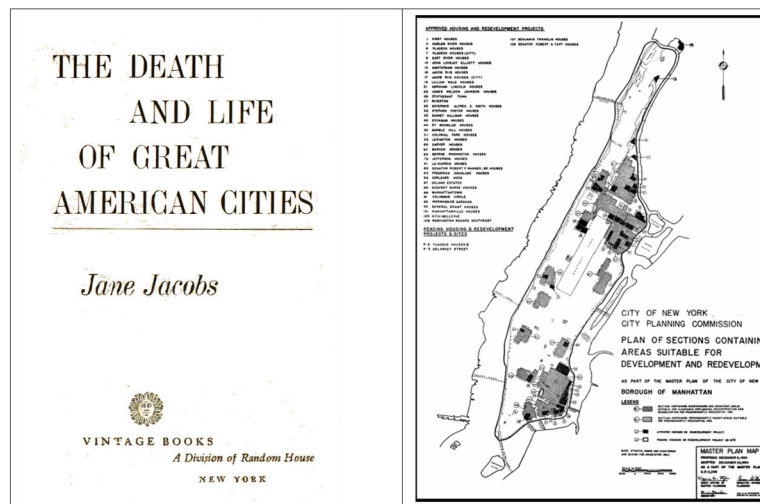


그림 2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1961)의 표지(좌)와 1954년 뉴욕시 맨해튼 재개발 마스터플랜 지도(우)

출처 : Jacobs, 1961(좌); Laurence, 2006(우).

* 우측 지도에서 재개발 대상지역인 Greenwich Village, East Harlem, Lower East Side 등이 회색으로 표시되어 있음.

city)’로 불리는 도시와 전원의 조화를 선호하였다. 그러나 Jacobs는 이러한 도시기능의 분산, 교외화를 비판하면서 대도시화와 대도시의 다양성을 선호하였다(Hill, 1988). Jacobs(1961)는 다양성을 가진 대도시는 도시에 서만 가능한 새로운 직업, 사고, 혁신의 탄생과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일부의 주장처럼 Jacobs는 도시계획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았으며, 오히려 도시계획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예를 들어, 도시에 서 무분별한 단일 토지이용을 막기 위해 용도지역제(zoning)와 같은 도시계획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Jacobs는 시청, 법원, 도서관 등의 공공기능은 도심 한 구역에 집적된 공간구조보다는, 교외지역에 전략적으로 분산 입지하는 공간구조가 더 바람직하다고 보았다(Ikeda, 2006).

Jacobs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도시계획은 대규모의 전면 철거 후 재개발하는 방식과는 거리가 있다. 또한 Jacobs는 관료 중심의 도시 재개발, 교외지역 조성은 진정한 도시를 파괴하고 파멸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Jacobs는 정부주도의 공간정책이 잘못된 방향, 절차로 대도시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거시적 도시정책도 도시의 세부 공간, 경제, 사회 특성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고 비판하였다(Hill, 1988). Jacobs는 이러한 거시적 모더니즘 차원의 도시계획이 3가지 도시계획 전통에 기반하고 있다고 보았는데, 즉, 도시의 미학적 아름다움을 추구한 도시미화운동(City Beautiful Movement), 도시문제의 반감과 전원의 조화를 강조한 Howard의 전원도시(Garden City), 모더니즘 측면에서 건물의 고층화와 도시기능의 공간집적을 추구한 Le Corbusier의 레디언트 도시(Radiant City)이다(Kidder, 2008). 또한 Jacobs는 도시 공간의 분산적 사고에 반대하면서, 정부는 상당한 자원을 도심이 아닌 교외지역 또는 농촌에 투자하면서 넓은 공간상에서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따라서 Jacobs는 적절밀도의 대도시 공간을 조성하면서 더 좋은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Hill, 1988). 이처럼 대도시를 선호하였던 Jacobs(1961)는 개인이 즐겁게 살고 일하는 도시적 삶을 추구하였다. 도시는 시민에게 중요한 여러 가치를 제공하며 또한 도시도 모든 주민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보았다. 이러한 주민 중심의 도시관을 가진 Jacobs는 도시 전체 스케일보다는 주거 중심의 근린(neighborhood) 스케일의 도시 역동성을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거시적 관점의 도시

계획과 배치되었다(Hill, 1988; White, 2011; Dory, 2018).

20세기의 대표 도시계획가인 Mumford(1895-1990)는 Jacobs의 도시관과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진다. 두 사람의 공통점을 우선 살펴보면, 첫째 1940~1960년대 도시 개발정책, Moses가 추진한 뉴욕시 재개발, 고가도로 건설계획을 근린파괴 이유로 반대하였다는 점이 공통된다. 당시 Mumford는 Jacobs가 도시재개발에 대한 반대 글을 계속 발표하도록 장려하기도 하였다. 둘째, Mumford와 Jacobs는 생태적 관점에서 도시를 바라본다는 측면에서 공통된다. 즉, 도시를 유기체로 간주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태어나고 성장하고 진화해간다는 보았다. 셋째, 두 사람은 도시가 일정 수준의 자율성을 가지고 도시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으며, 지나친 간섭, 규제는 오히려 도시를 악화시킨다고 보았다(Hill, 1988; Mellon, 2009).

그러나 Jacobs와 Mumford의 도시관은 다음과 같이 차이를 보인다. 첫째, Patrick Geddes(1854-1932)와 Howard(1850-1928)의 영향을 받은 Mumford는 고밀도의 대도시보다는 전원과 조화를 이루는 적절밀도의 신도시를 선호한 반면, Jacobs는 고밀도의 대도시를 선호하였다. 둘째, Mumford는 도시기능의 분산에 따른 도시 재구조화를 주장한 반면, Jacobs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인구, 경제활동의 집적을 강조하였다. 셋째, 생태적 관점에서 Mumford는 도시와 전원이 조화되는 이른바 ‘지역도시(regional city)’를 제안한 반면, Jacobs는 주거와 경제활동이 혼합되어 입지한 도시 중심지의 다양성과 혁신을 강조하였다. 넷째, Mumford는 거시적 측면에서 도시계획 수립과 변화에 초점을 둔 반면, Jacobs는 미시적 측면에서 근린의 활성화에 초점을 두었다(Hill, 1988; 1993; Mellon, 2009).

또한 Jacobs는 다른 도시계획 사고와는 차이를 보인다. Talen(2005)은 미국 도시계획의 전통을 4가지, 즉 점진주의(Incrementalism), 도시계획 수립(urban plan-making), 계획된 커뮤니티(planned communities), 지역주의(regionalism)로 분류하였다. Talen(2005)은 4가지 전통 중 Jacobs의 사고를 구원, 보존, 복합성, 다양성 등으로 특징되는 점진주의 전통으로 분류한 반면, Mumford의 사고는 인문환경, 자연환경의 조화와 통합을 고려하는 지역주의 전통으로 분류하였다. Jacobs는 전원도시 사고를 계승한 지역주의 전통이 도시를 제대로 이해하거나 사랑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반면, Mumford를 포함한 전원도시

론자는 신도시와 주변의 전원을 결합함으로써 도시문제(예, 범죄, 환경오염)에서 시민을 보호하고자 하였다(Mellon, 2009).

Jacobs가 살았던 뉴욕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역 군인, 해외 및 타 지역에서의 유입 인구를 위한 주택이 매우 부족한 상태였다. 또한 오랜 기간에 걸쳐 뉴욕 맨해튼은 심각하게 낙후되었으며, 용도지역제로 인해 소규모로 분할된 필지에 대한 소유권, 개발권 분쟁 등 도시계획 상의 많은 도시문제가 산적해 있었다. 기존의 도시구조는 급변하는 도시변화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뉴욕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도시블록의 재편, 근린의 재생, 도시 연결성 재편 등 대대적인 도시계획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1950년대 들어 뉴욕시에서 추진되는 도시재개발 정책과 이를 반대하는 보존운동이 충돌하였으며 이러한 충돌의 한 가운데에 Jacobs가 있었다(Laurence, 2006; Kidder, 2008).

Moses는 미국 도시계획사에서 도시의 공공서비스 건설, 도시계획 정책을 전적으로 주도한 핵심 인물이었다.³⁾ Robert Caro가 Moses의 일대기를 그린 「파워 브로커(The Power Broker)」(1974)에서 언급한 것처럼, 막강한 정책, 재정 권한을 가진 Moses는 불도저처럼 뉴욕시 재개발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1940년대까지 막힘없이 진행되었던 Moses의 도시계획은 1950년대에 계획된 맨해튼 재개발 정책(주거근린 철거 및 강제이주 포함)이 주민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치게 된다(Kidder, 2008). 이러한 반대운동은 1956년까지 뉴욕 맨해튼의 많은 지역(예, Greenwich Village, Upper West Side)으로 확대되었다(Hill, 1988). 특히, Moses가 계획한 Lower Manhattan Expressway(ROMEX) 건설계획은 맨해튼과 주변지역의 교통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하려는 계획이었지만, 주민은 건설과정에서 맨해튼의 많은 근린이 파괴될 것을 심히 우려하였다. 특히, Jacobs는 이 고가도로가 자신이 살던 Greenwich Village와 Washington Square Park를 관통하면서 근린을 파괴할 것을 우려하여 당시 뉴욕시장 Rober Wagner에게 반대 서한을 보냈다. 이러한 도시 재개발 반대 운동은 뉴욕시뿐만 아니라, New Orleans, Cleveland, Philadelphia, Washington, Fort Worth 등 미국 주요 대도시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근린보호 운동의 노력으로, 결국 뉴욕시 Lower Manhattan Expressway 건설계획은 중단되었다(Dimand and Koehn, 2010). 또한 Jacobs는 1956년 하버드대학교 강연에서 슬럼철거와 재

개발 계획에 극렬히 반대하였다. 예를 들어 Jacobs는 뉴욕 East Harlem 지역에서 주택 건설계획으로 인해 1,110개 상점이 철거되는 것을 비판하면서, 근린의 소규모 상점은 상업공간이기도 하지만 커뮤니티의 중심지 역할을 하므로 보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Jacobs의 이러한 도시재개발 반대 주장과 실천 운동은 도시계획 분야에 큰 주목을 받았다(Thus-dubrow, 2017)(그림 2의 우측).

Jacobs는 구체적인 뉴욕시 도시계획뿐만 아니라, 일반화된 차원에서 기존의 도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반대하였다. 우선 Jacobs는 국가, 주, 정부 주도의 대규모 도시계획을 반대하였다. 이러한 하향식(top-down) 도시계획 접근에 의해 대규모 사업비 소요와 함께, 상당한 기존 도시 공간이 급격히 사라지거나 변모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Jacobs는 도시근린을 파괴하는 도시재생사업이나 도시내 고가도로 건설계획을 반대하였으며, 도시근린이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Jacobs는 정부 주도의 주택건설 사업을 반대하면서, 대신 기존 주택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구하였다(Hill, 1988). 이러한 기존의 도시계획에 대한 비판을 토대로, Jacobs는 다음과 같은 도시계획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Jacobs(1961)는 생태적 관점에서 도시를 바라보았는데, 즉, 유기체로서의 도시는 태어나고 자라고 성숙해지고 쇠퇴하는 생명체와 같다고 보았다. 그리고 도시 구성요소로 주민, 거리(street), 근린, 정부, 경제를 들고, 이들 요소는 필수 존재로서 상호작용하며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Jacobs(1961)는 생태적 관점에서 좋은 도시는 생태계처럼 복잡하고 회복력이 있으며 창의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둘째, Jacobs는 대도시 중심의 도시계획을 주장하였다. 대도시는 고밀도와 경제, 사회, 정치, 문화 측면에서 다양성의 공간 특성을 지닌다고 보았다. 이러한 대도시 환경에서만 혁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도시 중심의 도시계획이 필요하다고 보았다(Jacobs, 1961; Hill, 1993). 셋째, Jacobs(1961)는 거시적 도시계획 접근에 반대하면서, 일상적, 비공식 관계로 형성되는 근린 중심의 도시계획을 주장하였다. 즉, 바람직한 도시는 성공적인 근린을 형성, 유지하는 것이며, 여기에서 주거, 상업, 공원, 제조업 등의 활동이 서로 어우러진다고 보았다. 또한 조화롭고, 활력있는 근린은 범죄, 질병 등의 도시문제를 예방,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Weicher, 1973; Ikeda, 2006). Jacobs(1961)는 성공적인 근린의 4가지 요소를 제안하였다. 첫 번째 요소로, 근린은 다양

한 토지이용이 혼합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두 번째 요소로, 근린의 블록(block)은 크기가 작고 짧아야 하며, 공간 상호작용과 소통이 원활해야 한다. 세 번째 요소로, 근린을 구성하는 건물들의 연령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오래된 건물은 보존가치와 함께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으므로 리모델링 등을 통해 다른 건물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좋다. 네 번째 요소로 인구가 충분히 밀집되어야 하며, 특히 도심은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활력있어야 한다(Kutsche, 1962; Weicher, 1973).

넷째, Jacobs는 도시에서 거리(street)의 중요성과 도시의 활력을 강조하였다. Jacobs는 거리가 도시의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고 주장하였다. 도시의 생명선인 거리는 도시의 안전, 사회응집력, 경제발전에 중요하다. 거리에서 주민이 허물없이 서로 만나 소통하며, 일상생활을 영위한다는 점에서 근린을 활력있게 만드는 핵심 공간이다(Hill, 1988; Ikeda, 2006). Jacobs(1961)는 도시의 활력과 더불어 안전을 강조하였다. 거리에서의 자연스러운 감시를 통해 안전이 가능하다고 보았으며, 보행자 역할을 특히 중요시하였다. 늦은 밤까지 북적이는 생기 넘치는 거리에서 사람들은 직접 범죄를 예방해주는 파수꾼(eye on the street)의 역할을 해준다고 보았다. 이러한 활력있는 도심에서 여성과 아이는 안전하게 생활한다(신정엽 등 역, 2019). 이러한 성공적인 근린의 사례로 Jacobs(1961)은 뉴욕시의 Greenwich Village, 보스턴의 North End, 시카고의 Bark of the Yards를 들고 있다(Kutsche, 1962).

Jacobs의 도시계획 사고는 후속 연구에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예를 들어 거리의 활력과 보행자의 중요성 연구(Rudofsky, 1969; Whyte, 1980; Appleyard, 1981), 밀집되고 혼합된 도시 공간 연구(Newman, 1973; Powe *et al.*, 2016) 등이 있다. 또한 Jacobs의 혼합토지이용, 건물연령의 다양성, 근린 활동 등의 요소에 대한 실증적 검증과 고찰연구(Weicher, 1973; Schmidt, 1977), 건물규모와 연령에 대한 가치 검토 연구도 수행되었다(Glaeser, 2011).

2. 혁신과 다양성의 중심지로서의 도시

앞서 살펴본 것처럼, Jacobs는 생태적 관점에서 도시를 규정하였다. 특히, 유기체와 에너지와의 관계에 주목하면서, 도시가 에너지를 외부로부터 받아 성장한다고

보았다. 이때 외부로부터 지역(도시)에 유입되는 에너지가 너무 적어도(예, 사막기후지역), 너무 많아도(예, 열대우림지역) 좋지 않으며, 에너지의 적절한 유입이 도시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 Jacobs는 유기체로서의 도시가 외부로부터의 유입을 통해 발전한다고 보았는데, 외부에서 제공되는 자원(에너지)에 따라 도시의 성장과 특성이 달라진다고 주장하였다. Darwin의 「종의 기원(On the Origins of Species)」(1859)에서 제시된 「복잡한 저장소(tangled bank)」의 개념을 도시 경제에 적용하면서, 도시는 외부로부터 충분한 자원의 공급과 함께, 자원의 세분화되고 다양한 이용을 통해 발전한다고 보았다. 이는 도시의 다양성과 관련되며, 또한 외부로부터의 지식, 혁신, 기술을 도입, 채택하면서 발전한다고 주장하였다(Elleman, 2004; 2005).

Jacobs가 주장한 혁신과 지식의 중심지로서의 도시 사고는 집적경제와 지식의 파급효과(knowledge spillover)와 관련된다. 이와 관련하여 Glaeser *et al.*(1992)은 도시에서 지식의 파급효과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Marshall(1920), Arrow(1962), Romer(1986)가 제시한 집적효과는 주로 동일업종 기업들이 집적함으로써 나타난다고 보았다. 반면 Jacobs(1969)는 외부로부터 핵심 산업의 지식 전파와 확산에 초점을 두었으며, 이로 인해 도시에 집적된 다양한 산업의 성장과 혁신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Glaeser *et al.*, 1992; Elleman, 2004; 2005에서 재인용). 또한 Jacobs는 도시 형성과 관련하여 경제의 독점 효과보다는 Porter(1990)가 주장한 경쟁력 요인에 동의하지만, 경제학자가 주장하는 클러스터 개념과도 거리를 두었다. 오히려 Jacobs는 특정 산업의 전문화보다는, 여러 산업들이 입지한 도시의 다양성이 혁신과 성장을 주도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다양성이 도시 경제성장에 기여한다는 이론은 경험적으로도 검증된다(Imbs and Wacziarg, 2003; Elleman, 2005; Dimand and Koehn, 2010).

Jacobs(1969)는 혁신이 도시경제의 양적 성장을 넘어, 다양하고 세분화된 분야와 방식으로 발전하는 데 기여를 한다고 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Jacobs는 3M사의 사례를 들었는데, Minnesota 주 벤처기업으로 시작한 Minnesota Mining and Manufacturing Company(3M사)은 모래를 채굴하여 사포, 연마제 등을 제작하였다. 그런데 모래를 사포에 붙이는 공정에서 곤란을 겪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3M사는 접착제에 대한 많은 연구와 실험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필요한 접착제를 개발하였을 뿐만

아니라, 혁신적인 접착 연구 성과를 신발, 종이, 전자제품, 섬유 등 다양한 제품에 적용하였다. 이러한 혁신은 사포뿐만 아니라, 매우 다양한 분야의 접착 제품 개발로 이어졌다. 이는 혁신이 기존 업무 범위를 넘어, 새로운 세분화된 분야, 업무로의 적용을 통해 결국은 혁신의 다양성과 적용이 경제적인 큰 성공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Jacobs(1969)는 기존의 수입 대체를 통해 혁신이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Jacobs(1969)는 일본 자전거 산업의 발전을 사례로 들었는데, 기술수준이 낮았던 일본 도시들은 초창기 서구에서 자전거를 전량 수입하였으며, 대신 정비를 위해 도시에 자전거 수리점들이 입지하였다. 오랜 시간 일본 도시의 자전거 수리점은 수입 자전거의 수리를 통해 관련 경험과 지식을 축적하였으며, 나중에는 자전거를 자체 생산하여 수입을 대체하고, 나아가 수출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도시는 초기에는 필요한 제품(자원)을 수입하지만, 지식과 경험의 축적 기간을 거친 후에, 자체 생산하면서 수입을 대체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혁신이 누적된 도시환경에서는 한 분야에서 누적된 혁신이 다른 분야에도 파급된다고 보았다. 즉, 한 분야의 지식, 혁신이 다른 분야의 제품으로 전파되며 다른 제품의 수입대체와 수출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혁신의 축적과 파급은 다양성을 가진 도시에서만 가능하게 된다. 이로 인해 도시는 하나의 혁신이 다른 분야로 혁신이 파급되는 일종의 'Jacobs의 사다리(ladder) 현상'이 나타난다. 또한 혁신의 중심지인 도시는 다른 경쟁자와의 경쟁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도시는 무언가를 자체적으로 생산해 내야하며, 이를 다른 지역에 수출하는 동시에 이 도시에는 생산되지 않은 자원 또는 제품을 수입한다. 따라서 도시 간 경쟁도 도시성장과 발전에 중요하다. 즉, 도시의 혁신적 생산뿐만 아니라 교역, 상호작용도 중요하다(Elleman, 2005).

앞서 살펴본 Jacobs의 도시계획과 혁신, 다양성을 중심으로 한 도시 사고는 도시지리학, 도시계획 분야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Jacobs의 사고에 대한 비판과 긍정적 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 우선 Jacobs의 도시적 사고는 다음과 같이 비판된다. 첫째, Jacobs는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제시할 때 적절하고 충분한 경험적 사례, 증거를 뒷받침하지 않았다. 따라서 Jacobs의 주장은 논리적 근거와 설득력이 부족해 보인다. 그녀가 주장한 상당 부분이 임시 가설을 토대로 쉽게 일반화를 진행하며, 일부

사례를 통한 논리적 비약이 크다고 비판된다. 둘째, 실천적 행위가 필수인 도시계획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근거, 지침이 요구된다. 그런데 Jacobs는 이러한 구체적인 근거, 지침을 제시하지 못하며 추상적 수준의 주장에만 머물렀다고 비판 받는다. 셋째, Jacobs는 도시기원과 발전에 대한 주장에서 도시의 다양성을 강조하였다. 그런데 실제로 Jacobs가 주장하는 도시 다양성이 과연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그녀가 제시한 도시 발전단계도 이론적으로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 사례에 적용, 설명하는 데 다소 모호하다. 넷째, Jacobs가 가지는 개인적 배경과 신념에 근거하여, 그녀가 주장한 상당한 부분이 이론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비판된다. 주장의 상당 부분은 관련 선행연구의 인용이 없으며, 대신 신문기사, 보고서, 인터뷰 등을 토대로 하며, 그 주장의 논리적 근거가 부족해 보인다(Friedman, 1970; Wagner, 1984; Hill, 1988). 예를 들어, Glaeser는 Jacobs의 「도시의 경제(The Economy of Cities)」(1969)를 상상력과 창의성으로 가득한 글이라고 비난하였다(Dimand and Koehn, 2010).

그럼에도 불구하고 Jacobs의 도시 사고는 후대에 큰 영향을 미쳤다. Jacobs의 도시 사고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Jacobs는 도시를 문명의 주요한 중심지로 규정하였으며, 특히 대도시의 중요성과 발전에 주목하였다. 둘째 Jacobs는 대규모 관료주의 도시계획에 반대하고, 대신 근린 중심의 도시계획을 주장하였다. 셋째, Jacobs는 자동차를 선호하고 전원적 공간과 삶을 중요시한 미국의 교외 지향의 도시관에 반대하였으며, 대신 고밀도의 대도시 중심의 도시관을 강조하였다. 넷째, Jacobs는 경제적 측면에서 다양성과 혁신을 지닌 도시를 국가보다 더 중요시하였다. 도시환경은 다양성과 혁신의 창출과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을 제공해주는 공간으로서, 이를 통해 새로운 직업, 업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파급된다고 보았다. 다섯째, Jacobs는 이러한 도시의 다양성을 위해 도시계획 측면에서 혼합적 토지이용, 소규모의 블록단위 구성, 다양한 연령의 건물들의 조화, 적정 수준의 도시 밀도를 중요시하였으며, 거리의 활력과 주민의 소통, 안전을 강조하였다(Friedman, 1970; Imbs and Wacziarg, 2003; Elleman, 2005; Dimand and Koehn, 2010). 이러한 Jacobs의 도시적 사고를 정리하면 그림 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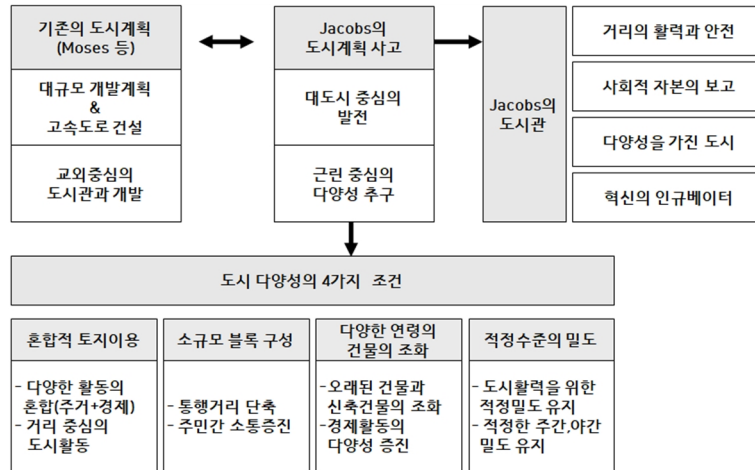


그림 3. Jacobs의 도시적 사고

IV. Jacobs의 도시기원 이론: 교역이론

앞서 살펴본 Jacobs의 도시 사고는 도시기원 이론으로서 교역이론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 Jacobs가 대도시 중심의 도시 구성과 다양성, 활발한 교류와 융합의 장인 도시에서의 혁신과 경제발전이 도시기원을 가능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앞서 검토된 논의를 바탕으로 Jacobs의 교역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하고자 한다. Jacobs는 추상적인 측면에서 도시기원과 발달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였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Catalhöyük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논의를 전개한다.

1. Jacobs의 교역이론(trade theory)

Jacobs의 도시기원 사고는 1969년 발표된 저서 「도시의 경제(Economy of Cities)」⁴⁾를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며, 교역이론(trade theory)으로도 알려지고 있다. Jacobs는 도시의 기원을 도시 자체보다는 폭넓은 역사와 경제적 맥락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즉, 도시의 기원과 발달과 관련하여 Jacobs는 당시 지배적인 농업기원이론을 비판하면서 시작하였다(Hill, 1993).

도시의 기원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인용되는 농업기원이론은 농업잉여(agricultural surplus)이론과 수력이론(hydrological theory)으로 구성된다. Childe(1936), Mumford(1961), Woolley(1963) 등에 의해 주장된 농업잉여이론은 ‘신석기 혁명(neolithic revolution)’으로 알려

진 농업의 기술혁신으로 인한 잉여발생과 이를 통한 경제적 부의 축적을 토대로 한다. 즉, 농업잉여와 축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사회적, 경제적 분화가 이루어졌으며, 정치적, 제도적 조직의 형성과 함께 도시가 기원하였다는 ‘도시혁명(urban revolution)’을 주장한다. 한편 Wittfogel(1957), Woolley(1963) 등이 주장한 수력이론은 농업 등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규모 치수, 관개의 필요성(예, 댐, 저수지 건설)과 더불어, 이를 위한 대규모 노동력의 동원, 물 사용에 대한 조정, 통제의 필요성을 기반으로 한다. 이를 위해 강력한 주체를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적 사회조직이 나타나며, 이로 인해 도시가 기원하였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농업기반의 도시기원 이론은 많은 학자에 의해 받아들여졌으며, 농업이 가능한 4대 고대문명 지역을 중심으로 한 도시기원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Childe, 1936; Mumford, 1961). 예를 들어, 인류 최초의 도시는 약 5,000년 전 농업이 가능한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에서 기원한 것으로 추정된다(Tilly, 1990; Soja, 2010).

그러나 이러한 농업기원이론의 대중성에도 불구하고 도시가 과연 농업을 기반으로 해서만 가능한 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었으며, 다른 관점에서 도시기원 설명이 시도되었다. 예를 들어, Soja(2010)는 Jacobs의 의견을 받아들여, 최초의 도시를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비옥한 초승달 지역(Fertile Crescent)이 아닌, 터키 아나톨리아 고원의 Catalhöyük으로 규정하였다. 연구자에 따라 Catal Hüyük, Chatal Höyük으로 불리는 이 도시는 도시

역사를 1만 년 전 이전으로 더 멀리 거슬러 올라가도록 한다. 특히, Jacobs(1969)는 농업의 시작으로 도시가 기원하였다는 주장에 반대하였으며, 오히려 농업시작 이전에 도시가 기원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 관점에서 도시는 보다 핵심적인 공간주체인 반면, 농업을 수행하는 주변 마을은 도시에 의존적이다. 도시는 주변지역의 농업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보다는 교역과 혁신을 통해 발전하였다고 보았다(Hill, 1993). 오히려 Jacobs(1969)는 농업을 가능하게 한 토대와 공간은 도시라고 주장하였는데, 도시 공간은 기본적으로 경제활동의 토대가 되며 농업의 핵심 활동도 도시를 토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창조적인 도시환경이 농업기술을 발전시켜 결국은 농업잉여도 도시 없이는 불가능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Friedman, 1970). 따라서 Jacobs(1969)는 농업의 기원을 도시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인간의 활동에서 정착지는 매우 중요하다. 수렵채집집단이 한 장소에서 정착하면서 정착지를 중심으로 인구가 밀집되었고, 또한 지식, 경험, 혁신, 자원 등이 집적되는 공간이 되었으며 이후 도시로 변모하게 되었다(Kayaalp, 1989).

Jacobs(1969)는 농업기원이론을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다. 첫째, Jacobs는 농업기원이론이 어떻게 사냥채집집단이 농업을 시작하였는지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고 비판하였다. 농업기원이론에서는 이전에는 재배되지 못하던 야생 식물이 우연히 함께 재배되면서 교배실생이 되었다고 주장된다. 그러나 Jacobs는 이 주장은 충분하지 못하며, 어떤 야생종은 재배종으로 변화하고 다른 야생종은 그러지 못한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고 비판하였다.⁵⁾ 둘째, 농업기원이론과 관련하여, Jacobs는 농업은 도시에서 생산되는 많은 재화, 서비스와 통합되지 않으면 결코 생산성이 높지 않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농업이 아니라도 도시에서 식량은 충분한 상태이다. 따라서 농업에 의한 충분한 잉여가 정착지 인구를 부양할 때까지, 도시가 기원하지 못한다는 농업기원이론의 주장은 틀리다고 Jacobs는 비판하였다(Kayaalp, 1989). 이 주장의 근거로, Jacobs(1969)는 미국의 농업을 변화시킨 홍중의 옥수수는 아이오아주 옥수수 농장지대에서 발전한 것이 아니라, 미국 동부도시 New Haven의 실험실에서 발전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캘리포니아 주의 과일, 채소 산업의 발전은 이 지역의 광활한 재배지역 보다는, 대도시인 샌프란시스코에서의 기술혁신이 기여

하였음에 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사례에 의하면, 농업 발전이 도시기원을 유도하였다고 보다는, 오히려 도시경제가 농업에 혁신과 발전을 가능하게 하였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이는 Smith(1775)가 「국부론(Wealth of Nation)」(1775)에서 주장한 것처럼 공업, 상업이 발달한 국가에서 농업이 고도로 발전한 이유와도 일맥상통한다(Jacobs, 1969).⁶⁾

Jacobs(1969)는 도시와 농촌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논리를 전개하였다. 도시는 단순히 농산물을 구입, 소비하는 주체가 아니라, 주변의 농촌에 각종 혁신과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한다. 도시 주변의 농촌은 실은 도시경제로부터 큰 도움을 받고 의존하며, 도시는 농업분야의 지식, 혁신을 제공함으로써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이를 통해 농업발전이 가능하다. 또한 도시가 소비되는 농산물의 상당량은 실은 주변 농촌보다는 다른 지역과의 교역을 통해 조달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Jacobs(1969)는 인류 최초의 도시는 농업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교역에 의해 기원되었다고 주장하였으며, 근거로 Jacobs는 Catalhöyük을 제시하고 있다. Jacobs(1969)에 의하면 Catalhöyük은 현재까지 발견된 최초의 도시이다. 1961년 고고인류학자 Mellaart가 터키 아나톨리아 고원에서 최초로 발견한 Catalhöyük은 신석기에 해당되는 BC 6,000년 경 건설된 것으로 추정된다. 발굴된 이 유적지 아래에는 오랜 기간 방치된 선토기(pre-pottery) 시대의 정주 유적층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Mellaart는 자신이 발견한 농업마을보다 역사가 더 오래된 정주체계가 존재하였다고 추정하였다). Catalhöyük은 높은 수준의 문명을 가진 정주체제로, 촌락(village)보다는 도시로 볼 수 있다. Catalhöyük은 수공업, 예술, 제조업, 상업, 주택 등의 유적을 포함하며 당시 많은 인구가 거주한 것으로 추정된다. Mellaart는 이 유적지의 경제기반을 교역을 중심으로 한 상업으로 보았는데, 주요 교역 물품은 도구와 장신구로 사용되는 흑요석이었다. 또한 다른 경제기반으로 농업보다는 사냥, 채집을 들고 있다(Kayaalp, 1989).

Jacobs(1969)는 이러한 설명을 위해 'New Obsidian'의 도시를 추정하였다. 이 도시는 Mellaart가 발굴한 Catalhöyük의 모 도시(parent city)로 추정되는데, 대규모 흑요석 교역의 중심지이다. Jacobs는 이 New Obsidian의 정확한 위치가 흑요석 산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화산지역을 지키는 사냥집단의 텃세와 다른 지역과의 교역을 위한 입지를 고려하여, 흑요석 산지에서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진(수십 km 거리) 곳에 입지한 것으로 추정한다. 상부 구석기 시대로 추정되는 이 도시는 교역을 목적으로 형성되었으며, BC 8,500년경에는 인구 2,000명으로 추산된다. 이 도시에는 교역인구와 흑요석 보유인구가 주로 거주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 대부분은 도시 경계 안에 거주하면서 교역 및 관련 활동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숙련된 기술 집단과 종교기능도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Hord, 1981).

Jacobs(1969)에 의하면, 흑요석 교역을 위해 멀리서 사람들이 New Obsidian을 방문하였으며, 이때 주로 수입되는 물품은 식량 자원, 장신구, 금속제품 등이었다. 이때 식량 자원은 장거리 교역에서 상하지 않는 것이 주로 교역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반면 교역에서 이 도시는 흑요석과, 교역을 위한 매매, 관리, 처리, 숙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이 도시가 쇠퇴하게 된 BC 5,400년까지 장거리 교역은 활발하였으며, 멀리 발칸반도, 팔레스타인, 이란 북부 지역을 포함한 최소 2,400km의 거리의 먼 지역과 교역하였다. 이 도시는 주민을 위한 주택뿐만 아니라, 교역인이 머무는 숙소도 존재하였다. 교역 장소는 도시 외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시의 경계에 주로 입지하였으며, 교역자를 위한 임시숙소는 나중에 영구 거처로 바뀌었다(Hord, 1981). 한편 Jacobs(1969)에 의하면, New Obsidian은 교역 기능뿐만 아니라 생산 기능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도시에서 농업, 가축사육이 이루어졌으며, 이들 기술은 도시 주변으로 전파되었다. 인류 역사에서 농업의 기반이 아닌, 사냥채집 기반의 도시 사례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Davis(1973)는 Jacobs의 주장과 유사한 주장을 하면서, 고대 도시에서 교역입지를 강조하였다. 예를 들어, BC 3,800년 경 교역도시였던 Tepe Yahya는 자원이 빈약한 메소포타미아와 자원이 풍부한 페르시아 간의 교역을 위해 최적의 위치에 입지하였으며, 또한 보유한 비누석(soap stone) 자원을 멀리 약 2,500km 거리의 지역까지 수출하였다. 이처럼 교역기능이 활발한 Tepe Yahya 도시는 문명 수준이 매우 높았지만, 농업, 가축사육은 하지 않았다. 또 다른 사례로 Altitepe 도시는 소아시아 동부와 중부 지역 사이의 교통의 요지에 입지하였으며, Lubaantun은 카카오 재배에 최적인 토양을 가진 도시이며, 카카오 자원을 주변 지역의 흑요석, 용암석, 옥과 교역하였다. 이러한 초기 도시들은 특화된 자원 생산과 교역에 유리한 곳에 입지하였는데, 이를 통해 교역을 위한

공간 마찰을 최소화하였다(Kayaalp, 1989).

New Obsidian로 유입된 식량 자원은 초기에는 주로 야생 동식물이었지만, 나중에는 가축사육 방식을 채택하여 자족하였다. 동물 중에서는 양이 사육의 용이성, 강한 번식력, 맛있는 육질 등의 이유로 선호되었다. 또한 농업도 시작되었는데, 초기에는 야생식물 중에 대한 특별한 선호는 없었던 것으로 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함께 저장되고 재배되면서 다양한 종들이 섞이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혼종교배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기후의 내구성, 높은 수확량을 가진 종들이 자연 선택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농업지식과 경험의 축적이 이루어졌는데, 혼종교배와 식물종의 선택은 지식, 정보, 기술의 축적과 실험 등이 왕성한 도시환경에서 가능하였다(Jacobs, 1969; Kayaalp, 1989).⁷⁾ 이처럼 New Obsidian은 초기에는 식량을 전적으로 수입하였지만, 이후 농업, 가축사육을 채택하면서 수입을 대체하였다. 이러한 수입대체는 우연한 것이 아니다. 식량대체를 위해서는 혁신 기술, 지식이 필요하며, 이는 New Obsidian 도시에서만 가능한 일이었다. 이러한 식량 수입의 대체는 도시경제를 급격히 변화시켰다(Jacobs, 1969). 따라서 New Obsidian에서는 식량 수입대체 이후, 새로운 종의 동식물이 수입되었으며, 이러한 다양성은 도시경제를 보다 풍요롭게 하였다. 또한 이렇게 발전된 도시경제는 주변 농촌의 발전에 영향을 주었는데, 도시에서 발전된 농업의 혁신, 기술이 주변 농촌으로 전수되었으며, 이로 인해 식량 생산성은 획기적으로 향상되었다(Jacobs, 1969; Hord, 1981; Kayaalp, 1989).

Jacobs(1969)는 따라서 Catalhöyük이 흑요석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가졌으며, 그것은 도시의 창조적 경제라고 주장하였다. Jacobs(1969)는 이 도시와 관련하여, 흑요석 매장지역과의 접근성과 이를 토대로 한 교역도 중요하지만, 또한 창조적 경제의 중심지 역할을 중요시 여겼다. Jacobs는 주민이 창조적 도시 공간을 중심으로 많은 것들을 결합시켰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도시는 주변 지역과의 상호작용, 교역만으로 발전하기 어렵다. 그 보다는 여러 지역, 도시들 간의 교역, 상호작용을 통해 창조적 도시경제가 탄생한다고 보았다. Jacobs(1969)는 신석기 시대에 가장 중요한 발명은 농업이 아니며, 오히려 창조적 도시경제이며, 이를 통해 많은 새로운 유형의 일들이 탄생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Jacobs의 도시기원 이론은 다음 사례를 통해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다. 우선 농업기술이 도시에서 처음 유래되었다는 Jacobs의 주장은 생소하지 않다. 많은 고대 도시는 수천 명의 인구가 거주하였으며 농업의 중심지였으며, 주민의 상당수는 농업에 종사하였다. 이는 현대 도시의 경제적 기반이 농업이 아니라 제조업, 서비스업이었던 상황으로 보면 얼핏 생소할 수 있지만, 고대 사회의 상황에서는 보편적인 상황일 것이다. 그러나 농업으로 인한 잉여발생이 도시의 토대가 되었다는 농업기원이론의 주장과 달리, 반대 사례도 존재한다. 첫 번째 사례로, 농업기원이론은 식량이 풍부하였던 뉴욕 Manhattan 인디언 부족이 도시를 건설하지 않은 이유, 반면 식량이 부족하여 기근 상태인 일본이 단기간에 자족 농업사회를 건설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Kayaalp, 1989). 두 번째, 농업기원이론은 고산에 위치한 마야문명 도시와 저지대의 비도시 지역 간의 관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이와 관련하여 Davis(1973)는 마야문명 도시의 빠른 발전과 몰락 등의 사례를 통해 기술, 혁신이 저지대 사냥집단 마을에서 유래되지 않았으며, 대신 고산도시에서 유래되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마야문명의 도시 이전의 1,000년 동안, 저지대 마을은 곡물 재배, 가축 사육의 지식이 무지하였다. 단지 저지대의 옥수수는 재배되지 않고 야생 상태에서 자랐으며 생산량도 빈약하였지만, 고산도시의 기술, 혁신의 영향을 받아 경작이 이루어지고 수확량도 급증하였다(Kayaalp, 1989). 세 번째 사례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도시로서, 고대 수메르 문명의 Lagash, Eridu, Erech, Jericho 등이 최초 도시로 언급된다. 그러나 이들 도시의 주변에는 도시 인구를 부양할 만한 충분한 농지가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 오히려 수메르 문명의 최초 도시는 종교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는데, 도시 중심에 지구라트 건설, 신전의 존재, 신전에서 관리한 농업 잉여 등이 관련 증거라 할 수 있다(Kayaalp, 1989). 이처럼, 농업기원이론으로는 설명이 어려운 도시의 사례가 많으며, 오히려 Jacobs의 교역이론이 더 설득력있게 들릴 수 있다.

한편 Jacobs의 도시기원 이론은 여러 측면에서 비판되었다. 첫째, Jacobs는 도시기원 이론의 토대인 「도시의 경제(Economy of Cities)」(1969)의 1장 제목을 “도시가 우선, 농업발전은 그 다음(Cities First-Rural Development Later)”이라고 명명하였다. 이는 Jacobs가 농업잉여이론을 반박하면서, 현대, 중세 도시, Catalhöyük의 사례를 들어, 도시의 기원 이후 농업, 가축 사육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Jacobs는 도시가 먼저 기원하였다는 보다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Catalhöyük의 사례도 구체적인 증거없이 제시되고 있다고 비판된다. 둘째, Jacobs가 「도시의 경제(Economy of Cities)」(1969) 집필 당시, 고고학 분야의 연구 성과를 충분히 검토하였다면 그녀의 주장에 오류와 허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즉, Jacobs의 주장은 당시와 이후의 고고인류학 분야의 연구 성과와는 다르며, 합리적인 논리, 근거는 1969년 저서 출간 이후에도 제시되지 못하였다. 셋째, Jacobs는 도시 공간을 중심으로 교역과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지만, 정작 도시에서 시장이 어디에 입지하고 어떤 구체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지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였다. 대신 Jacobs는 도시에 시장이 존재하며 새로운 경제활동을 자극한다고만 추상적인 차원에서만 주장을 하였다. 도시와 다른 지역 간의 교역도 중요하지만, 도시기원과 성장에 더 중요한 것은 교역보다는 시장의 입지와 역할이다. 넷째, Jacobs는 도시기원과 관련하여 Catalhöyük의 사례에 주로 의존하였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수많은 고대 도시들이 존재하였으며, 이들 도시의 조건, 환경은 매우 다양하다. 어떤 고대 도시는 정말로 혁신, 다양성을 기반으로 기원, 발전하였는지, 그리고 다른 도시는 어떤 이유로 정체 또는 쇠퇴하였는지에 대해, Jacobs는 충분한 논의와 주장을 제시하지 못하였다(Friedman, 1970; Smith *et al.*, 2014). 사실 Jacobs는 1969년 저서 이후, New Obsidian이나 도시기원에 대한 저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반면 1970~1980년대 고고학 분야에서는 도시, 문명 기원과 관련한 많은 연구 성과가 발표되었으며 많은 경험적 증거도 제시되었다. 이 상황에서 Jacobs의 교역이론은 많은 비판을 받았다(Kurtz, 1987; Hansen, 2000; Algaze, 2008; Smith *et al.*, 2014에서 재인용). 그러나 그렇다고 무작정 Jacobs의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단정짓기도 어렵다. Soja(2000)는 Jacobs의 주장이 고고학, 고대사 분야의 엄격한 검증을 이겨낼 수 없지만, 핵심 주장은 충분히 강력하고,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Smith *et al.*, 2014 재인용).

여러 가지 약점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Jacobs의 도시기원 이론은 현재 우리에게 도시기원에 대한 중요한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1969년에 발표된 「도시의 경제(Economy of Cities)」에서 주장된 Jacobs의 이론이 현재까지 중요하게 인식되는 것은 1990년대 지리학 분야의 도시

학자들이 Jacobs의 도시기원 이론을 소생시킨 덕분이기도 하다. 도시지리학 분야의 주요 교재에서는 Jacobs의 이론을 소개하면서 설득력 있다고 평가하거나 찬성 논조를 띠었으며(Phillips, 1996; Short, 1996; Miles, 2007), 많은 도시연구들이 Jacobs의 주장을 소개하고 받아들였다(예, Reader, 2005; Aguiar, 2010; Taylor, 2012). 예를 들어, Soja는 *Postmetropolis*(2000) 등의 연구에서 Jacobs의 이론을 심도있게 다루고 평가하였다(Soja, 2003; 2010).

현재까지 누적된 고고학 분야의 자료와 분석결과를 통해, 농업과 도시기원의 시점을 비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근동지역의 경우 농업은 BC 8,400~BC 7,500년에 시작되었으며, 도시기원 시기보다 빠른 것으로 알려졌다(심지어 Catalhöyük보다도 빠름). Catalhöyük 유적(BC 7,500~BC 6,000년)의 경우 고고학 분야에서는 도시가 아닌 신석기 정주취락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Simmons, 2007). Catalhöyük의 발굴 책임자인 Hodder도 '도시'로 명명하는 데 신중한 입장을 취한다(Hodder, 2006). 한편 Soja(2010)는 고고인류학 유적과 자료를 토대로 보았을 때, Jacobs의 주장대로 도시가 먼저 기원하고 농업, 가축 사육이 이후에 나왔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또한 농업잉여가 가능하였던 주요 기술발전과 혁신이 또한 도시에서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아, 도시화와 농업 발달이 상호 인과적인 상호작용과 관계 속에서 함께 진화하였

다고 주장하고 있다. 농업으로 인한 잉여 축적이 도시발달을 자극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지만, 또한 도시화는 농업혁명에 핵심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Jacobs의 도시기원 이론은 유용하며, 또한 현재에도 진행 중인 Catalhöyük의 유적 발굴 결과에 따라 향후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현재시점에서 볼 때 Jacobs의 도시기원 이론은 어느 정도 설득력과 타당성을 지니며, 또한 비판의 여지도 동시에 존재한다.

2. Jacobs의 도시기원 이론의 무대인 Catalhöyük

Jacobs가 교역을 기반으로 한 도시기원 이론의 근거로 제시하였던 Catalhöyük은 터키 아나톨리아 고원 남부에 위치한 고대 선사유적지이다. 코나분지(Konya Plain)에 자리잡은 Catalhöyük은 발굴당시 약 13만m²의 면적에 해당하며, 해발고도는 980m이다. 그리고 Catalhöyük은 Mount Hasan의 화산지대와 140k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까지 발굴된 이 유적지는 세계문화유산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 2012년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었다(Mellaart, 1962; UNESCO World Heritage Convention Catalhöyük)(그림 4).

Catalhöyük 유적 발굴은 두 고고학자, 즉 James Mellaart, Ian Hodder에 의해 주도적으로 수행되었다. 이 유적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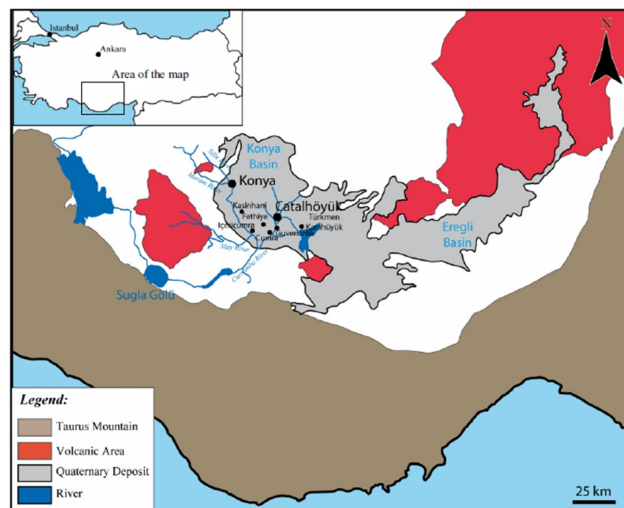


그림 4. Catalhöyük의 지도

출처 : Catalhöyük Research Project, 2008.

* 지도에서 Catalhöyük은 남쪽으로 타우루스 산맥이 지나며, Carshamba 강이 지나가는 코나분지에 입지하며, 근처에는 화산지역이 위치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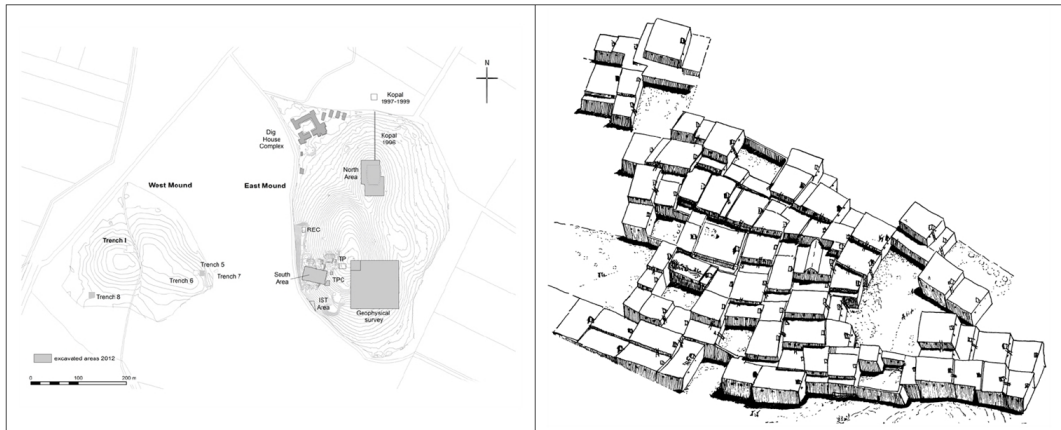


그림 5. Catalhöyük의 동쪽 유적지와 서쪽 유적지(좌)와 Catalhöyük의 공간구성 추정(우)

출처 : Catalhöyük Research Project, 2012(좌); Mellaart, 1966(우).

- * 좌측 지도에서 Catalhöyük은 언덕에 위치한 서쪽 유적지와 동쪽 유적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유적발굴은 동쪽 유적지에 집중되어 있음.

는 1958년 Mellaart⁸⁾에 의해 최초로 발굴되었으며, 이후 4차례(1961, 1962, 1963, 1965년)에 걸쳐 발굴되었다(Mellaart, 1962; 1966). 발굴 작업의 결과 신석기시대 문명의 중심지로 주목받게 되었다. 특히, 이 유적지에 여러 시기에 걸쳐 정착되었음을 보여주는 18개의 연속된 정주 레이아웃들이 발굴되었으며, 시기는 대략 BC 7,500~BC 5,600년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Catalhöyük이 초기 유적발굴을 담당하였던 Mellaart는 밀수와 관련한 사안으로 터키정부로부터 발굴 작업이 금지당하였으며, 발굴은 한동안 중지되었다. 그러다가 1993년 영국 Cambridge 대학 Ian Hodder에 의해 Catalhöyük 발굴 작업이 재개되었으며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이 유적지의 발굴은 초기에는 고고학 유적의 발굴과 특징에 초점을 맞춘 반면, 이후 현재까지의 발굴은 지리, 사회, 경제, 문화, 종교 측면에서의 발굴과 해석에 초점을 두는 경향을 보인다(Hodder, 2006; 2011; Orton *et al.*, 2018; Catalhöyük Research Project 홈페이지).

현재까지 발굴된 이 유적지는 동쪽 유적지와 서쪽 유적지로 구성된다. 신석기 후기(BC 7,400~BC 6,000년)에 해당되는 동쪽 유적지는 구릉지 지형 위에 위치하며, Catalhöyük 유적으로 알려진 대부분의 발굴이 여기에 해당된다(그림 5의 좌측). 이 구릉지에서는 주택의 건설, 파괴, 재건설, 파괴 과정을 반복하면서 18개의 주거 레이아웃이 발견되었다. 반면, 금석병용기(Chalcolithic)시대

(BC 6,000)에 해당되는 서쪽 유적지는 소규모의 구릉지들에 위치하고 있다(Hodder, 2006). Catalhöyük의 유적지는 신석기와 금석병용기를 중심으로 변성하였다가 청동기 이후에 방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두 언덕의 유적지들 사이로 차삼바(Carsamba) 강이 흘렀으며, 발굴된 주거 유적지들은 충적토 위에 건설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Catalhöyük Research Project, 2008; 2012; Orton *et al.*, 2018).

Catalhöyük 유적지의 특징은 동쪽 유적지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현재까지 발굴된 유적은 주로 주택들이 주를 이룬다. 주거지역은 표준화된 격자형 도시구조를 가지며, 주택은 보통 25m²의 규모를 가진 것으로 나타난다. 발굴된 주택은 보통 거실 1개와 저장 공간 1개로 구성되며, 한 주택에 보통 5~10명이 거주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동쪽 언덕의 유적지의 거주 인구는 최대 1만 명으로 추정되지만, 다양한 추계 방식을 고려하면 대략 5천~7천 명의 인구가 거주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현대 도시의 판정기준을 고려해도 매우 높은 인구규모를 가진 것으로 보여, 인구규모 기준으로 볼 때에는 도시로 보기에 충분해 보인다.⁹⁾ 셋째, 이 유적지는 진흙벽돌로 지어진 주택들이 골목 없이 공간적으로 밀집되어 연결된 일종의 별집 공간구조를 가진다(그림 5의 우측). 이러한 형태의 공간 구조에서 주택의 출입구는 옆면이 아닌 지붕에 뚫린 구멍이며, 이

곳을 통해 사다리 등으로 출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밀집된 벌집형 주택구조는 외부로부터의 방어 목적을 지닌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Catalhoyuk Research Project, 2008; Maynes and Waltner, 2012).

넷째, 주택 내부의 벽은 회반죽으로 처리되었으며, 내부에서 오븐, 화로가 발굴되었다. 발굴당시 방 내부는 깨끗한 상태였으며, 주택의 지붕은 여러 용도로 활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즉, 날씨가 좋을 때에는 지붕 위에서 주로 생활하였으며, 평평한 지붕들이 연결된 넓은 공간은 일종의 광장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섯째, 앞서 언급된 것처럼, 진흙벽돌로 지어진 주택은 내구성이 높지 않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철거되고, 그 위에 다시 주택이 지어졌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지면의 고도가 계속 높아져 현재의 언덕과 같은 형태를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 여섯째, 이 유적에서도 종교의례가 존재하였다. 종교의례의 일환으로 주민은 시신을 마을 내에 묻었으며, 유골의 일부는 주택 아래에서 발굴되었다(Catalhoyuk Research Project, 2008; Maynes and Waltner, 2012).

Jacobs(1969)는 이 유적지는 농업보다는 교역, 수공업 등 다른 경제활동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보았다. 물론 Mellaart가 농업기원이론에 토대하여 이 유적을 논의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 지역의 자연환경과 다른 지리적 여건은 농업에 적합하다고 보기는 어렵다(Jacobs, 1969; Hodder, 2006; 2011). Mellaart는 발굴된 Catalhöyük를 초기에는 “신석기 도시(neolithic city)”라 명명하였으며, ‘city’, ‘urban’, ‘town’ 용어를 ‘정착지(settlement)’와 함께 빈번히 사용하였다(Mellaart, 1963; 1965a; 1965b; 1967). Hodder(2006)는 유적지 규모를 고려하면 ‘타운(town)’ 용어를 사용할 수 있지만 ‘대규모의 마을(very large village)’로 규정하고자 하였다(Taylor, 2012). 그러나 Catalhoyuk Research Project(2012)은 이곳을 ‘거대한 신석기 도시(large Neolithic town)’라고 표현하였다. 또한 Taylor(2012)는 Soja(2000)의 세 가지 도시 혁명 개념을 인용하면서 Jacobs의 도시기원 이론을 옹호하였다. 즉, Soja(2000; 2003)는 Catalhöyük의 사례처럼 12,000년 전 인간사회의 큰 변화와 농업혁명을 가능하게 하였던 시기를 첫 번째 도시혁명,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지역에서 이루어진 도시-국가의 출현과 발전을 두 번째 도시혁명, 그리고 19세기에 유럽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산업혁명과 함께 이루어진 도시혁명을 세 번째 혁명으로 규정하였다. 이 중 첫 번째 도시혁명은 농업이 시작되기

전인 전-신석기 도시에 해당하며, 이는 Jacobs의 주장과도 다르지 않다. Soja(2010)에 의하면, Catalhöyük은 신석기의 ‘대표 대도시(major metropolis)’로서 약 2,000년간 지속되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V. 결론

본 연구는 Jacobs의 도시 사고와 도시기원 이론에 대한 심층적인 이론적 고찰을 목적으로 하였다. 뉴욕시와 토론토를 중심으로 대도시에 대한 관심과 경험을 토대로 Jacobs는 현대 도시의 특성을 파악하고, 도시문제를 비판하고 바람직한 도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Jacobs의 도시 사고를 본 연구에서 도시계획 측면과 혁신과 다양성을 중심으로 탐색하였다. 거시적 관점에서 수행되었던 도시계획 사고와는 달리, Jacobs는 대도시의 중요성과 더불어 미시적 수준에서 근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도시특성과 미래 발전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Jacobs는 또한 전면적 도시계획, 도시재개발 정책에 반대하였으며 도시 근린을 보호하고, 도시의 활력과 주민을 위한 생동감 있는 도시를 바람직한 도시의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Jacobs는 바람직한 도시계획에 사고를 저서와 잡지, 신문, 강연 등의 방식을 통해 대중에게 알리려 하였고, 도심의 근린을 위협하는 도시재개발, 고가도로 개발 계획 등에 대해서는 반대운동으로 자신의 사고를 실천하였다. 또한 도시의 분산화, 교외 중심의 도시 발전에 반대하면서, 혁신과 다양성의 개념을 중심으로 대도시의 특성과 미래 방향을 제시하였다. 대도시가 가지는 혁신과 지식의 중심지, 그리고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문명 발전의 보고로서 도시의 특성을 규정하고자 하였다.

한편, Jacobs는 도시기원에 대한 매우 중요한 관점과 사고를 제시하였다. 도시기원과 관련하여 농업을 기반으로 한 농업잉여이론, 수력이론에 대한 논의를 비판하고, Jacobs는 농업잉여가 아닌 도시 공간만이 가지는 혁신과 다양성의 중심지 기능에 주목하면서, 교역을 중심으로 한 도시기원 이론을 제시하였다. Jacobs는 농업의 주도적인 역할 없이 충분히 도시가 기원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터키 아나톨리아 고원의 Catalhöyük을 사례로 교역을 기반으로 한 도시기원 이론을 전개하였다. 이렇게 기원된 도시는 많은 다양한 지역과의 교역, 상호작용을

하는 중심지였으며, 이러한 다양한 교역, 상호작용을 통해 도시가 가지는 혁신, 지식의 집적, 그리고 다양성이 가지는 시너지를 바탕으로 도시가 발달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혁신의 중심지인 도시는 오히려 농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Jacobs는 도시뿐만 아니라 인류 문명과 인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중요한 사고와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특히, 도시에 대한 Jacobs의 사고는 매우 따뜻하면서 도덕적인 기반을 가지며, 인간을 중심으로 한 조화와 발전을 토대로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에서 고찰하였던 Jacobs의 도시계획 분야의 사고, 혁신과 다양성을 토대로 한 도시적 사고, 교역을 중심으로 한 도시기원 이론은 서로 연결되면서, 역사상에서의 도시의 본질적인 특성을 파악하도록 해준다.

註

- 1) 본 연구에서 핵심 연구지역으로 등장하는 Catalhöyük에 대해서 Jacobs(1969)는 Catal hüyük라는 표기를 사용하였으며, 이 유적지의 최초 발굴자도 동일한 표기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이 유적지를 발굴 중인 Hodder와 다른 연구자들은 Catalhöyük라고 표기하고 있으며, 또한 2012년 세계유산으로 등록되는 공식명칭도 Catalhöyük로 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보다 공식적이고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Catalhöyük의 표기를 사용하고자 한다.
- 2) Jacobs는 「도시와 국가의 부(Cities and the Wealth of Nations)」(1985)에서, 도시가 역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또한 국가 경제발전에 동력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Jacobs는 Smith의 「국부론(The Wealth of Nations)」(1775)의 영향을 받아, 국가의 부는 개별 도시 경제활동의 총합으로 보았다. 이때 국가보다는 도시의 역할이 더 중요한데, 왜냐하면 다양하고 활발한 경제활동은 도시 수준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런데 거시경제 지표(예, 국가성장률, 실업률)는 자칫 우리에게 왜곡된 시각을 제공할 수 있는데, 이런 지표는 도시 수준의 경제 상황(예, 변이, 다양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Hill, 1988). Jacobs(1984)에 의하면, 도시와 국가는 2가지 단계로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우선 초기단계에서 한 국가의 도시들은 방어, 교역 등의 목적으로 연합한다. 그러나 도시가 점점 성장, 발전하며 도시에 대한 정부의 통제와 역할이 축소되면서, 국가는 강력해지는 도시에 불안감을 느낀다. 국가와 도시 간의 긴장, 갈등이 고조되면서 두 번째 단계가 나타난다. 국가는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 도시가 아닌 공간에 새로운 권력기반을 조성하는데, 주요 대상은 교외지역, 농촌이다. 그러나 정부는 비도시 지역에 대한 통제,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경제 지원을 하면서 재정의 어려움을 겪으며, 도시도 정부로부터 소외되면서 침체, 쇠퇴한다. 결국 국가와 도시는 모두 파멸로 이르게 될 것으로 Jacobs는 경고한다. Jacobs(1984)는 이러한 도시/국가 간 관계가 주기적으로 반복되면서 문명의 역사가 진행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도시간의 원만한 관계 복원과 함께 대도시의 중요성과 역할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Hill, 1988).
- 3) 현대 도시계획에서 Moses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다. 비판적 관점에서 Caro(1974)등에 의해 Moses에 대한 생애와 사고가 상세히 조명되었으며, Jacobs의 반대운동 등이 부각되었다. 그러나 한편 대도시 뉴욕의 문제를 해결하고 세계중심지로서의 현재 뉴욕의 지위를 가능하게 하였고, 현대 도시의 공공개발정책의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Moses의 업적과 사고가 재평가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공존한다(Baloon and Jackson, 2007; New York Times, On January 23th, 2007; Larson, 2009).
- 4) 이 저서는 총 268페이지 분량으로 구성되며, 총 8장으로 구성되는데, 장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1. Cities first-rural development later, 2. How new work begins, 3. The valuable inefficiencies and impracticalities of cities, 4. How cities start growing, 5. Explosive city growth, 6. How large cities generate exports, 7. Capital for city economic development, 8. Some patterns of future development(Jacobs, 1969).
- 5) Jacobs(1969)는 다음과 같이 농업기원론이 근거 없다고 주장하였다. 즉, Jacobs는 고고학자에게 어떻게 도시 이전에 농업이 올 수 있는지를 아느냐고 질문하였고, 고고학자들은 경제학자들이 정립하였다고 답변하였다고 한다. 다시 Jacobs는 경제학자들에게 같은 질문을 하였으나, 경제학자들은 고고학

자들이 이를 정립하였다고 답변하였다고 한다. 즉, 이 근원적인 질문에 대해 두 분야로부터 어떠한 신뢰성 있는 답변을 얻지 못하였다고 Jacobs는 이야기하였다(Jacobs, 1969:44; Smith *et al.*, 2014 재인용).

- 6) 한편 Jacobs는 도시기원과 성장 요인으로 분업 (division of labor) 체계의 발전을 들었다. 기존 업무가 세부공정으로 나누어짐으로써 생산성도 높아 지지만, 분업체계의 발전을 통해 기존 업무 외에 새로운 업무가 창출되며, 또한 이로 인해 새로운 부가가치, 새로운 혁신이 나타난다. 그런데 이러한 분업체계의 발전과 혁신은 농촌이 아닌 도시에서 가능하였다고 주장된다(Friedman, 1970).
- 7) 이처럼 도시에서 혼종교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1) 그전까지 함께 재배되지 않았던 식물 종들이 상당 기간 함께 저장, 관리되고, (2) 이러한 혁신적 농업 기술과 지식이 도시에 누적, 전수되며, (3) 보존된 다양한 식물종과 변종 종에 대한 보관과 실험이 반복되어야 한다(Jacobs, 1969; Kayaalp, 1989).
- 8) 영국 고고학자 James Mellaart(1925-2012)는 Catalhöyük의 유적 발굴로 유명하다. 터키 이스탄불 대학에서 강의하였으며, 앙카라에 위치한 British Institute of Archaeology의 부책임자로 재직하다가 1951년부터 터키의 유적 발굴에 본격 참여하였다. 발굴이 진행되던 1954년 아나토리아 고원 서부의 청동기 후기의 삼페인 잔 토기를 확인하는데 기여하였고(Beycesultan의 발굴), 1961~1965년 동안 Catalhöyük 유적을 발굴하였다(Wikipedia 홈페이지).
- 9) 세계의 도시 설정기준은 국가마다 다양하다. 예를 들어, 도시 정의로서 최소 인구규모 기준으로 페루는 100명, 노르웨이, 아이슬란드는 200명, 캐나다는 1,000명, 오스트리아, 아르헨티나, 이스라엘, 네덜란드 등은 2,000명, 미국은 2,500명(town의 경우)을 기준으로 설정한다. 우리나라(복합지표법 적용)는 일본과 함께 50,000명을 근거로 하여 설정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Carter, 1975; UN, 2018).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현대 도시의 기준도 인구규모를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고대 도시의 판정기준을 너무 엄격하게 제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참고문헌

- 강봉원, 2003, “한국고대 국가형성에 있어서 관개수리의 역할: 윌트포겔(Wittfogel)의 수리이론과 관련하여”, 한국상고사학보, 39, 51-70.
- 박진빈, 2010, “동네예찬: 『제인 제이콥스,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유강은 옮김, 그린비, 2010)”, 도시연구, 4, 213-220.
- 변은주, 2012, “뉴욕 그리니치 빌리지의 도시조직과 도시근린에 관한 분석: 제인 제이콥스가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정엽·김감영·김영호 역, 2019, 「도시 공간을 보다: 35가지 시선으로 바라본 도시」, 서울: 시그마프레스
- Aguiar, G., 2010, The agrarian basis of Athenian democracy, *Journal of Comparative Politics*, 3, 20-41.
- Alexiou, A., ed., 2006, *Jane Jacobs, Urban Visionary*, New Brunswick, NJ: Rutgers University Press.
- Algaze, G., 2008, *Ancient Mesopotamia at the Dawn of Civilization: The Evolution of an Urban Landscap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Appleyard, D., 1981, *Livable Street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Arrow, K., 1962, The economic implications of learning by doing, *Review of Economic Studies*, 29(3), 155-173.
- Ballon, H. and Jackson, K., 2007, *Robert Moses and the Modern City: The Transformation of New York*, New York: W.W. Norton.
- Caro, R., 1974, *The Power Broker: Robert Moses and the Fall of New York*, New York: Alfred A. Knopf.
- Carter, H., 1975, *The Study of Urban Geography*, London: Arnold.
- Catalhoyuk Research Project, 2008, *Catalhöyük 2008 Archive Report* (http://www.catalhoyuk.com/sites/default/files/media/pdf/Archive_Report_2008.pdf).
- Catalhoyuk Research Project, 2012, *Catalhöyük 2012 Archive Report* (http://www.catalhoyuk.com/sites/default/files/media/pdf/Archive_Report_2012.pdf).
- Childe, V.G., 1936, *Man Makes Himself*, London: Watts and Co.
- Cortright, J., 2001, *New Growth Theory, Technology and*

- Learning: A Practitioner's Guide*, Portland: Impresa.
- Davis, K., 1973, *Cities: Their Origin, Growth, and Human Impact*, San Francisco: WH Freeman.
- Dimand, R. and Koehn, R., 2010, Jane Jacobs, economies and economics, *The Journal of Economic Asymmetries*, 7(1), 175-185.
- Dory, J., 2018, Clash of urban philosophies: Moses versus Jacobs, *Journal of Planning History*, 17(1), 20-41.
- Ellerman, D., 2004, Jane Jacobs on development, *Oxford Development Studies*, 32(4), 507-521.
- Ellerman, D., 2005, How do we grow?: Jane Jacobs on diversification and specialization, *Challenge*, 48(3), 50-83.
- Friedman, J., 1970, Review of the economy of cities, *Urban Affairs Quarterly*, 54, 474-480.
- Glaeser, E., 2000, Cities and ethics: An essay for Jane Jacobs, *Journal of Urban Affairs*, 22(4), 473-493.
- Glaeser, E., 2011, *The Triumph of the City: How Our Greatest Invention Makes Us Richer, Smarter, Greener, Healthier, and Happier*, New York: Penguin Books.
- Glaeser, E., Kallal, H., Scheinkman, J., and Shleifer, A., 1992, Growth in citi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0(6), 1126-1152.
- Hansen, M.H., 2000, Introduction: The concepts of city-state and city-state culture, in Hansen, M.H., ed., *A Comparative Study of Thirty City-State Cultures*, Copenhagen: The Royal Danish Academy of Sciences and Letters, 11-34.
- Hill, D., 1988, Jane Jacobs' ideas on big, diverse cities: A review and commentary, *Journal of the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54(3), 302-314.
- Hill, D., 1993, A case for teleological urban form history and ideas: Lewis Mumford, F.L. Wright, Jane Jacobs and Victor Gruen, *Planning Perspective*, 8(1), 53-71.
- Hodder, I., 2006, *The Leopard's Tale: Revealing the Mysteries of Çatalhöyük*, New York: Thames and Hudson.
- Hodder, I., 2011, Çatalhöyük: A prehistoric settlement on the Konya plain, in Steadman, S.R. and McMahon, G., eds., *Oxford Handbook of Ancient Anatolian Studies*, Oxford, UK: Oxford University Press, 934-949.
- Hord, J., 1981, A proposal on the nature of the onset of civilization, *Comparative Civilization Review*, 7(7), 45-53.
- Hospers, G., 2006, Jan Jacobs: Her life and work, *European Planning Studies*, 14(6), 723-732.
- Ikedo, S., 2006, Jane Jacobs, *Freeman: Foundation for Economic Education*, 56(7), 20-23.
- Imbs, J. and Wacziarg, R., 2003, Stages of diversifica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93(1), 63-86.
- Jacobs, J., 1961, *The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 New York: Random House.
- Jacobs, J., 1969, *The Economy of Cities*, New York: Vintage.
- Jacobs, J., 1980, *The Question of Separatism: Quebec and the Struggle over Sovereignty*, Montreal: Baraka Books.
- Jacobs, J., 1985, *Cities and the Wealth of Nations*, New York: Random House.
- Jacobs, J., 2001, *The Nature of Economics*, Modern Library.
- Jacobs, J., 2005, *Dark Age Ahead*, New York: Vintage.
- Kayaalp, O., 1989, The Jacobs hypothesis of the urban origin of agricultural activity: Twenty years later, *Journal of European Economic History*, 18(3), 683-691.
- Kidder, P., 2008, The urbanist ethics of Jane Jacobs, *Ethics Place and Environment*, 11(3), 253-266.
- Kurtz, D.V., 1987, The Economics of urbanization and state formation at Teotihuacan, *Current Anthropology*, 28(3), 329-40.
- Kutsche, P., 1962, Review of *The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 by Jane Jacobs, *American Anthropologist*, 64(4), 907-914.
- Larson, S., 2009, Whose city is it anyway? Jane Jacobs vs. Robert Moses and contemporary redevelopment politics in New York City, *Berkeley Planning Journal*, 22(1), 33-41.
- Laurence, P., 2006, The death and life of urban design: Jane Jacobs, the Rockefeller Foundation and the new research in urbanism, 1955-1965, *Journal of Urban Design*, 11(2), 145-172.
- Laurence, P., 2007, Jane Jacobs before death and life,

- Journal of the Society of Architectural Historians*, 66(1), 5-15.
- Marshall, A., 1920, *Principles of Economics*. New York: Macmillan.
- Maynes, M. and Waltner, A., 2012, *The Family: A World Histor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Mellaart, J., 1962, Excavations at Catal Hüyük: First preliminary report, 1961, *Anatolian Studies*, 12, 41-65.
- Mellaart, J., 1963, Excavations at Catal Hüyük, 1962: Second preliminary report, *Anatolian Studies*, 13, 43-103.
- Mellaart, J., 1965a, Catal Hüyük, a neolithic city in Anatolia, *Proceedings of the British Academy*, 51, 201-213.
- Mellaart, J., 1965b, Catal Hüyük West, *Anatolian Studies*, 15, 135-156.
- Mellaart, J., 1966, Excavations at Catal Hüyük, 1965: Fourth preliminary report, *Anatolian Studies*, 16, 165-191.
- Mellaart, J., 1967, *Çatal Hüyük: A Neolithic Town in Anatolia*, New York: McGraw-Hill.
- Mellon, J., 2009, Visions of the livable city: Reflections on the Jacobs-Mumford debate, *Ethics Place and Environment*, 12(1), 35-48.
- Miles, M., 2007, *Cities and Cultures*, New York: Taylor and Francis.
- Mumford, L., 1961, *The City in History*, New York: Harcourt, Brace.
- Mumford, L., 1962 (1968 reprinted), Home remedies for urban cancer, in Miller, D., ed., *The Urban Prospect*, New York: Harcourt, 184-200.
- Newman, O., 1973, *Defensible Space: Crime Prevention through Urban Design*, New York: Collier Books.
- Orton, D., Anvari, J., Gibson, C., Last, J., Bogaard, A., Rosenstock, E., and Biehl, P., 2018, A tale of two tells: Dating the Catalhöyük West mound, *Antiquity*, 92(363), 620-629.
- Phillips, E., 1996, *City Lights: Urban-Suburban Life in the Global Societ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Porter, M., 1990, *The Competitive Advantage of Nations*, New York: Free Press.
- Powe, M., Mabry, J., Talen, E., and Mahmoudi, D., 2016, Jane Jacobs and the value of older, smaller buildings, *Journal of the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82(2), 167-180.
- Reader, J., 2005, *Cities*, New York: Vintage.
- Romer, P., 1986, Increasing returns and long-run growt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4(5), 1002-1037.
- Rudofsky, B., 1969, *Streets for People*, Garden City, NJ: Doubleday.
- Schmidt, C., 1977, Influence of land use diversity upon neighborhood success: An analysis of Jacobs' theory, *The Annals of Regional Science*, 11(1), 53-65.
- Short, J., 1996, *The Urban Order: An Introduction to Cities, Culture, and Power*, Oxford: Blackwell.
- Simmons, A.H., 2007, *The Neolithic Revolution in the Near East: Transforming the Human Landscape*, Tucson: University of Arizona.
- Smith, M., Ur, J., and Feinman, G., 2014, 'Jane Jacobs' 'Cities First' model and archaeological reality,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Regional Research*, 38(4), 1525-1535.
- Soja, E.W., 2000, *Postmetropolis: Critical Studies of Cities and Regions*, Oxford: Blackwell.
- Soja, E.W., 2003, Writing the city spatially, *City*, 7, 269-280.
- Soja, E.W., 2010, Cities and states in geohistory, *Theoretical Sociology*, 39, 361-376.
- Talen, E., 2005, *New Urbanism and American Planning: The Conflict of Cultures*, New York: Routledge.
- Taylor, P.J., 2012, Extra ordinary cities: Early "city-ness" and the origins of agriculture and st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36, 415-447.
- Tilly, C., 1990, *Coercion, Capital, and European States, AD 990*, Cambridge: Basil Blackwell.
- Tuhus-dubrow, R., 2017, An ad hoc affair, *Nation*, 304(5), 27-31.
- UN, 2018, 2017 *Demographic Yearbook: Sixty-eighth Issue*, New York: 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 Wagner, R., 1984, City lights, *The New Republic*, 191, 29-32.

- Weicher, J., 1973, A test of Jane Jacobs' theory of successful neighborhoods, *Journal of Regional Science*, 13(1), 29-40.
- White, R., 2011, Jane Jacobs and Toronto, 1968-1978, *Journal of Planning History*, 10(2), 114-138.
- Whyte, W., 1980, *The Social Life of Small Urban Spaces*, Washington D.C.: The Conservation Foundation.
- Wittfogel, K., 1957, *Oriental Despotism*,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구종서 역, 1991, 「동양적 전제주의」, 서울: 법문사).
- Woolley, L., 1963, *History of Mankind: Prehistory and the Beginnings of Civilization*. London: George Allen and Unwin.
- Wright, F.L., 1958, *The Living City*, New York: New Horizon Press.
- New York Times, On January 23th, 2007, "Rehabilitating Robert Moses" (by Pogrebin, R.)
- 유네스코 세계유산 Catalhöyük 홈페이지, <https://whc.unesco.org/en/list/1405>

Catalhöyük Research Project 홈페이지, <http://www.catalhoyuk.com>

US Library of Congress 홈페이지, <https://www.loc.gov/pictures/item/2008677538>

Wikipedia 홈페이지, <http://www.wikipedia.org>

교신 : 신정엽,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이메일: geoshin@snu.ac.kr)

Correspondence : Jungyeop Shin, 08826, 1 Gwanak-ro, Gwanak-gu, Seoul, Korea,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Email: geoshin@snu.ac.kr)

투 고 일: 2019년 9월 6일

심사완료일: 2019년 10월 3일

투고확정일: 2019년 10월 10일